

# 먹거리계획 협력 활성화 간담회

### 진안군, 전북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초청 안정적 시행 위해 지원방안 등 모색

진안군은 10일 군청 강당에서 전춘성 진안군수를 비롯한 먹거리위원회 위원 20여명과 먹거리사업추진단 등 30여명이 자리한 가운데 전라북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센터장 나영삼) 초청 '먹거리계획 도-군 협력 활성화 간담회'를 진행했다.

진안군은 그간 중소농의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군민 먹거리 불평등 해소를 위한 먹거리계획 시행기반 확보를 위해 △먹거리 통합조례 제정 △진안군 먹거리위원회 구성 △진안군 먹거리 종합 5개년 계획 공표 등을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지난 4월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인 '지역 먹거리계획 패키지 지원 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65억 원을 확보했다.

이에 진안군 먹거리계획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개최하고, 광역형 먹거리정책 컨트롤타워인 전라북도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계획 공유를 통해 전라북도와의 연계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역할분담 및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했다.

이날 행사의 1부 순서는 전춘성 진안군수의 환영사 후 나영삼 센터장으로부터 전라북도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계획을 청취하고, 이어서 농축산유통과에서 준비한 먹거리계획 추진상황 및 급속계획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2부 순서로는 진안군먹거리위원회의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활동을 위해 진안군청 먹거리 관련 팀장들로 구성된



진안군은 10일 군청 강당에서 전춘성 진안군수를 비롯한 먹거리위원회 위원 20여명과 먹거리사업추진단 등 30여명이 자리한 가운데 전라북도먹거리통합지원센터(센터장 나영삼) 초청 '먹거리계획 도-군 협력 활성화 간담회'를 진행했다.

실무추진단과의 상견례 시간을 갖고, 각 분과별 분과장 선출 등을 진행하며, 향후 위원회 각 분과의 정책과제 선정에 대한 열띤 토의로 이어졌다.

특히, 참석자들은 전라북도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따른 시군 연계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과 함께 전북 동부권의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지역먹거리 선순환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인근 지자체와의 협력 및 우리 군의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또한, 분과별 토의를 통해서도 △군민 누구나 건강·안전한 먹거리보장 △지속가능한 생산·공급기반 구축

△통합적 운영관리체계기반 구축 △지역협력 거버넌스활성화 등의 실행과제 관련 심도 있는 논의도 진행됐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행사를 마무리하며 "진안군 먹거리계획의 안정적인 실행을 위해 전라북도와 우리 군 협력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할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 군 먹거리계획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군민 누구나 차별없이 질 좋은 지역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살기 좋은 고장 만들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소방서 개청' 업무 개시

### 소방행정 편의성 증대·양질의 소방서비스 제공

무주소방서(서장 오승주)는 무주소방서 건물 준공이 완료돼 11일부터 신청사를 개청하여 본격적으로 업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무주소방서는 기존의 무주119안전센터에서 소방서로 승격됨에 따라 건물을 증축해 운영하며 그동안 민원 발생 시 장수로 방문하던 군민들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고령화 사회에 따른 구급 수요에 신속한 대응을 실시하는 등 무주군민들에게 고품질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조직구성은 소방행정과, 현장대응단 등 1과 1단 7팀으로 구성되며, 출동부서는 119구조대 1개소, 119안전센터 2개소, 119지역대 2개소로 편성됐다.

운용인력은 소방공무원 139명, 의용소방대 310명이며, 소방장비는 펌프차



6대, 구급차 4대, 물탱크차 1대, 굴절차 1대, 구조차 2대, 지휘차 1대 등 총 25대다.

오승주 무주소방서장은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빈틈없는 소방 안전 서비스 제공에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탄소저감형 녹비작물 종자생산 연구

### 진안군·국립농업과학원 협업

진안군은 탄소저감형 녹비작물 종자생산 보급체계 구축을 위해 농촌진흥청 유기농업과와 협업해 2022년부터 5년간 녹비작물 유기종자 생산과 재종기술을 연구하고 탄소 발생량 감소 연구를 하고 있다.

10일 군에 따르면, 지구온난화에 영향이 크다고 알려진 메탄과 아산화질소 같은 온실가스는 농업에서도 배출되고 있으며 메탄은 아산화탄소보다 20배, 아산화질소는 300배 이상 지구온난화 가속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농업 환경에서는 주로 벼 재배와 가축분뇨, 논밭에서 사용하는 화학비료 사용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진안군과 농촌진흥청은 올해 녹비작물인 봄 파종 작물로 '수단그라스'와 '네마장황' 종자 생산과 가을

녹비작물로 '호밀'과 '유채'를 재배하고 있다. 녹비작물은 토양피복, 토양 내 유기물 공급 및 토양산층류 등 토양 병해충 억제 효과가 있다. 특히, 녹비작물 자체가 탄소저감 기능을 하고 있어 탄소저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농업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녹비작물 종자가 대부분 수입종자에 의존하고 있고, 국내 자체 생산 공급 체계가 부족한 실정이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라도 국내 종자 수급을 할 수 있는 재종기술 연구도 같이 진행하고 있어 그 연구 성과가 주목받고 있다.

고경식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분야 탄소 감축 실천을 위해 탄소저감형 녹비작물 종자생산 연구로 농업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군, 9월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한국어 교육

장수군이 관내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언어장벽 해소를 위해 한국어 교육을 실시한다.

10일 군에 따르면, 최근 농촌인력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분야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이 확대되고 있으나, 영농현장에서 언어장벽으로 노동 생산성 저하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

이에 장수군은 현재 농가에 배치되어 일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국문화에 대한 기본교육,

영농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 생활에 필요한 생활언어에 대한 교육을 7월부터 9월까지 주말 등을 활용해 실시한다. 또한 한국 생활 적응 문화이해 교육, 법률 및 인권교육을 비롯해 외국인 주민들과 지역주민들의 화합 한마당 잔치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무단이탈 예방 및 근로의욕을 고취해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 "무주 반디랜드 야외 물놀이장에서 시원한 여름 보내요"

### 인공폭포·성인용·유아용 풀장·편의시설 등 갖춰 15일 개장

여름철 가족단위 관광객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무주 반디랜드 야외 물놀이장이 오는 15일 개장(~8.20)한다.

반디랜드 야외 물놀이장의 수용 인원은 1백 명으로 767.36㎡ 규모에 인공폭포와 유아용 풀장, 성인용 풀장, 그리고 탈의실과 샤워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마련돼 있다.

하루 이용료는 개인의 경우 성인이 8천 원, 청소년은 7천 원이며 어린이(4세~초등학생)는 6천 원이다. 20인 이상 단체의 경우에는 성인이 6천4백 원, 청소년 5천6백 원, 어린이 4천8백 원이다. 무주군은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물놀이장에 수상인명구조원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인력 1명과 심폐소생술 교육을 수료하고 물놀이장 경험이 있는 수상안전요원 5명, 그리고 간호조무사 1명을 상시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이용객들이 물놀이장 입장 전 준비운동을 하도록 하는 한편, 어린이가 성인용 풀장을 이용할 때에는 보호자를 동반하게 하고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무주군 시설사업소 김경복 소장은 "곤충박물관과 식물원, 천문과학관, 동물체합장 등의 반디랜드 시설과 함께 이용하기 좋다"며 "방학을 맞은 아이

들이 무주 반디랜드에서 안전하고 재미있게 야외 물놀이를 모두 즐길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 반디랜드 야외 물놀이장의 운영시간(기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이며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는 시설 및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매주 월요일은 휴장한다.

한편, 반디랜드 내에는 생태학습이 가능한 곤충박물관과 식물원, 반디별 천문과학관뿐만 아니라 통나무집과 청소년수련원 등 숙박이 가능한 시설도 자리하고 있어 온 가족이 같이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